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감 사 보 고 서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한일회계법인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5
포괄손익계산서.....	7
자본변동표.....	8
현금흐름표.....	9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8년 2월 6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한 일 회 계 법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 표 이 사 유 승 안

2019년 02월 26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수일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서관 13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
(전 화) 02-6030-4809

재 무 상 태 표

제 3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4,5,6,7		5,792,883,060		1,207,394,458
현금및현금성자산		5,792,883,060		1,207,394,458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5,6,8		532,911,000		-
집합투자증권		532,911,000		-	
III.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4,5,6,9		300,000,000		-
기타		300,000,000		-	
IV. 유형자산	2,10		165,826,293		212,157,828
비품		68,892,530		62,942,530	
감가상각누계액		(39,517,237)		(25,978,525)	
시설장치		322,418,800		297,718,800	
감가상각누계액		(185,967,800)		(122,524,977)	
V. 기타금융자산	2,4,5,6		394,771,103		189,118,476
미수운용보수		194,319,186		3,857,426	
미수금		-		1,675,050	
미수수익		3,821,917		-	
임차보증금		183,586,000		183,586,000	
기타보증금		13,044,000		-	
VI. 기타자산		-	5,029,796		1,630,003
선급비용		1,052,736		1,427,033	
당기법인세자산		3,977,060		202,970	
자 산 총 계			7,191,421,252		1,610,300,765
부 채					
I. 기타금융부채	2,4,5,6		731,335,324		16,826,157
미지급금		585,200		14,394,760	
미지급비용		730,750,124		2,431,397	
II. 기타부채			220,405,188		125,130
예수금		15,319,550		125,130	
부가세예수금		205,085,638		-	
III. 순확정급여부채	2,3,11		83,722,337		72,485,978
확정급여채무		83,722,337		72,485,978	
부 채 총 계			1,035,462,849		89,437,265
자 본					
I. 자본금	1,13		8,650,000,000		5,500,000,000
보통주자본금		8,650,000,000		5,500,000,000	
II. 자본조정			(68,521,800)		(22,440,000)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주식할인발행차금		(68,521,800)		(22,440,000)	
Ⅲ.이익잉여금(결손금)	14		(2,425,519,797)		(3,956,696,500)
미처리결손금		(2,425,519,797)		(3,956,696,500)	
자 본 총 계			6,155,958,403		1,520,863,500
부채와자본총계			7,191,421,252		1,610,300,76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I. 영업수익	2		4,201,681,462		18,078,390
운용보수		3,435,338,772		16,760,088	
수수료수익		694,8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6	21,951,219		-	
이자수익	6	49,591,471		1,318,302	
II. 영업비용			2,701,021,321		2,133,484,510
판매비와관리비	15	2,633,932,321		2,133,484,5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6	67,089,000		-	
II. 영업이익(손실)			1,500,660,141		(2,115,406,120)
IV. 영업외수익			3,527,013		22,602
잡이익		3,527,013		22,602	
V. 영업외비용			2,647,311		-
잡손실		2,647,311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501,539,843		(2,115,383,518)
VII. 법인세비용	12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1,501,539,843		(2,115,383,518)
IX. 기타포괄손익			29,636,860		68,207,794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9,636,860		68,207,79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9,636,860		68,207,794
X.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531,176,703		(2,047,175,724)
XI. 주당순이익(손실)	16				
기본(희석)주당순이익(손실)			944		(2,26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총계
2017.01.01(전기초)	4,000,000,000	-	(1,909,520,776)	2,090,479,224
유상증자	1,500,000,000	(22,440,000)	-	1,477,560,000
당기순손실	-	-	(2,115,383,518)	(2,115,383,518)
보험수리적손익	-	-	68,207,794	68,207,794
2017.12.31(전기말)	5,500,000,000	(22,440,000)	(3,956,696,500)	1,520,863,500
2018.01.01(당기초)	5,500,000,000	(22,440,000)	(3,956,696,500)	1,520,863,500
유상증자	3,150,000,000	(46,081,800)	-	3,103,918,200
당기순이익	-	-	1,501,539,843	1,501,539,843
보험수리적손익	-	-	29,636,860	29,636,860
2018.12.31(당기말)	8,650,000,000	(68,521,800)	(2,425,519,797)	6,155,958,40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3(당) 기		제 2(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25,264,402		(1,939,484,050)
1. 당기순이익(손실)	1,501,539,843		(2,115,383,518)	
2. 조정내역	180,430,613		297,812,688	
이자수익	(49,591,471)		(1,318,3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67,089,000		-	
감가상각비	76,981,535		89,626,724	
퇴직급여	85,951,549		209,504,266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01,298,482		(123,664,0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600,000,000)		-	
미수운용보수의 증가	(190,461,760)		(3,857,426)	
미수금의 감소(증가)	1,675,050		(1,032,210)	
선급비용의 감소	374,297		5,795,181	
부가세대급금의 감소	-		15,502,210	
미지급금의 감소	(13,809,560)		(2,460,220)	
예수금의 증가(감소)	15,194,420		(4,132,490)	
부가세예수금의 증가	205,085,638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28,318,727		(3,062,399)	
퇴직금의 지급	(45,078,330)		(130,416,668)	
4. 이자의 수취	45,769,554		1,318,302	
5. 법인세의 납부	(3,774,090)		432,50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3,694,000)		12,166,42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00,000,000		17,336,42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00		-	
기타보증금의 감소	-		17,336,42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43,694,000)		(5,17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800,000,000		-	
비품의 취득	5,950,000		-	
시설장치의 취득	24,700,000		5,170,000	
기타보증금의 증가	13,044,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03,918,200		1,477,56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03,918,200		1,477,560,000	
유상증자	3,103,918,200		1,477,56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585,488,602		(449,757,626)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07,394,458		1,657,152,084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792,883,060		1,207,394,45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식

제 3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1. 일반 사항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6년 3월 29일 "에머슨퍼시픽코브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7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2018년 3월에 상호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집합투자업 및 관련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8,65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 식 수 (주)	지 분 율 (%)
리딩투자증권(주)	588,200	34.00%
도담에스테이트(주)	570,900	33.00%
아난티(주)	570,900	33.00%
계	1,73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

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 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8년 공시사항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 금융상품: 공시’ 의 개정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회사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아래 ② 참고).

경영진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검토 결과 금융자산의 측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ii) 리스채권, iii)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중 매출채권(미수운용보수)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 적용일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인식된 누적 추가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회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④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회사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최초 적용일 관련 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사가 기존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했었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재분류하기로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	기준서 제 1039호	재측정	기준서 제 1109호
기타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89,118	-	189,118
기타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6,826	-	16,82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회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규정의 내용 및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아래 ‘11) 수익인식’에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

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에 서술한 대로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② 리스의 식별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1.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2.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회사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ㄱ.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1.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 2.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3.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중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837,383천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739,392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나.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회사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도상환특성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조기상환의 원인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원금

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손상규정 포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사항(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손실을 배분하거나 손상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법인세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 차입원가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 사업결합 ’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 공동약정 ’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최초에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개정사항은 관련된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특정 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

있을 때,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측정 대상 이전보유지분은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 전후에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동 기준서는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 인식 후에 결정되며,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측정과 관련된 문단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제도의 변경 후의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재측정에 사용된 갱신된 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이자의 경우, 개정사항에서는 제도의 개정 이후 기간 동안의 순이자는 동 기준서 문단 99에 따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대한 이번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축소 및 정산에만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제정)

동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해석서를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거나 비교정보를 소급해서 재작성하지 않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가) 분류 및 측정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 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 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다)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비품	4
시설장치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7)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가) 금융부채 · 자본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 복합금융상품

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라)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1.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2.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3.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2.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바)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사)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 금융자산’ 참고)
- 2.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아)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자)금융부채의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0)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1) 수익인식

당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자보수

당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자로서, 각 펀드별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위탁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자보수는 각 약관에 정해진 보수율에 따라 회계기간 중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12)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

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13)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19년 3월 29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외환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외환위험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상각후원가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채무상품, ii) 리스채권, iii) 매출채권및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노출, 거래처의 신용등급 및 과거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예치금	5,792,883	1,207,39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00,000	-
기타금융자산	394,771	189,118

3)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5년 이내
기타금융부채	731,335	-	-	-	-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5년 이내
기타금융부채	16,826	-	-	-	-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부 채	1,035,463	89,437
자 본	6,155,958	1,520,864
부채비율	16.82%	5.88%

5. 공정가치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5,792,883	5,792,883	1,207,394	1,207,39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2,911	532,91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00,000	300,000	-	-
기타금융자산	394,771	394,771	189,118	189,118
합계	7,020,565	7,020,565	1,396,512	1,396,512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731,335	731,335	16,826	16,826
합계	731,335	731,335	16,826	16,826

당기 중,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당기말 현재 회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준별 공정가치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당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532,911	532,911

(4) 수준 3의 공정가치

당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기초	-	-
취득	1,478,049	1,478,049
당기손익인식금액	(45,138)	(45,138)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매도	(900,000)	(900,000)
당기말	532,911	532,911

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예치금	-	5,792,883	5,792,88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2,911	-	532,91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0,000	300,000
기타금융자산	-	394,771	394,771
합 계	532,911	6,487,654	7,020,565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현금및예치금	1,207,394
기타금융자산	189,118
합 계	1,396,512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731,335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16,826

(3)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21,951	-	21,9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67,089)	-	(67,089)
이자수익	-	49,591	49,591
합 계	(45,138)	49,591	4,453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1,318

7. 현금및예치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4,292,883	1,207,394
정기예금	1,500,000	-
합 계	5,792,883	1,207,394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집합투자증권	532,911	-

(2)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량(좌)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집합투자증권				
에머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제2호투자신탁	300,000,000	1.11%	300,000	242,292
리딩에머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3호유한회사	300,000,000	1.58%	300,000	290,619
합 계			600,000	532,911

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이자율	만기	당기말	전기말
기타				
(주)리딩플러스	15%	2019-06-10	300,000	-

10.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비품	68,892	(39,517)	29,375
시설장치	322,419	(185,968)	136,451
합 계	391,311	(225,485)	165,826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비품	62,943	(25,979)	36,964
시설장치	297,719	(122,525)	175,194
합 계	360,662	(148,504)	212,158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	기 말
비품	36,964	5,950	-	(13,539)	29,375
시설장치	175,194	24,700	-	(63,443)	136,451
합 계	212,158	30,650	-	(76,982)	165,826

<전 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	기 말
비품	52,700	-	-	(15,736)	36,964
시설장치	243,915	5,170	-	(73,891)	175,194
합 계	296,615	5,170	-	(89,627)	212,158

11. 퇴직급여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금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83,722	72,48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83,722	72,486

(2)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금액	72,486	61,606
당기근무원가	84,111	207,979
이자원가	1,840	1,526
퇴직급여 지급액	(45,078)	(130,417)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29,637)	(68,208)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2,496	(2,666)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32,133)	(65,542)
보고기간말 금액	83,722	72,486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기말
할인율	2.22%	2.30%
임금상승률	4.80%	4.80%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변경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민감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구 분	1%감소	1%증가
할인율변화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5,639	(4,995)
기대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4,930)	5,446

<전 기> (단위: 천원)

구 분	1%감소	1%증가
할인율변화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6,971	(6,030)
기대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5,977)	6,761

12. 법인세 비용 및 이연법인세

(1)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I.법인세부담세액:		
1)당기부담세액	-	-
2)전기법인세 조정액	-	-
합 계	-	-
II.이연법인세 변동액	-	-
III.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변동액	-	-
IV.손익계산서상 보고된 법인세비용(I+II-III)	-	-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501,540	(2,115,384)
적용세율	10%,20%,22%	10%,20%,22%
적용세율에따른 세부담액	280,308	-
조정사항		
- 이월결손금및세액공제	(305,978)	-
- 기타차이	25,670	-
법인세비용	-	-
평균유효세율	-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법인세 이연효과를 발생시키는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당기말	전기말	당 기	전 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4,760	-	-	-
확정급여채무	18,419	15,947	-	-
이월결손금	498,330	856,660	-	-
합 계	531,509	872,607	-	-

(주) 당기말 현재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 531,509천원은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3. 자본금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당기말
보통주	10,000,000	1,730,000	5,000원	8,650,000

14. 이익잉여금(결손금)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처분예정일 : 2019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 2018년 3월 29일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425,520)		(3,956,697)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3,956,697)		(1,909,521)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29,637		68,208	
당기순이익(손실)	1,501,540		(2,115,384)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425,520)		(3,956,697)

15.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직원급여	1,608,814	1,155,209
퇴직급여	85,952	209,504
복리후생비	51,411	62,177
교육훈련비	303	2,465
여비교통비	6,303	13,378
접대비	57,662	33,247
통신비	8,850	9,425
세금과공과금	3,968	4,737
감가상각비	76,982	89,627
지급임차료	174,511	172,602
보험료	5,702	6,734
차량유지비	10,435	7,178
운반비	1,271	830
도서인쇄비	257	862
소모품비	4,839	11,384
지급수수료	428,961	224,880
건물관리비	94,841	102,775
집기임차료	6,240	6,748
협회비	6,630	19,723
합 계	2,633,932	2,133,485

16. 주당이익(손실)

(1)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이익(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1,501,539,843	(2,115,383,518)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590,192	935,342
기본주당순이익(손실)	944	(2,262)

(2) 당기 및 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주)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주식수
기 초	2018-01-01	1,100,000	365	1,100,000
유상증자	2018-03-23	630,000	284	490,192
합 계		1,100,000		1,590,192

<전 기>

(단위: 주)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주식수
기 초	2017-01-01	800,000	365	800,000
유상증자	2017-05-30	200,000	216	118,356
유상증자	2017-10-31	100,000	62	16,986
합 계		1,100,000		935,342

(3) 당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식은 없는 바, 희석주당순이익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특수관계자

(1) 당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당사와의 관계
리딩투자증권(주)	지배회사

(2)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직 책	총보상비용
당 기	대표이사외 4인	479,337
전 기	대표이사외 3인	801,956

(4)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18. 약정사항

당사는 당기말 현재 AJ렌터카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최소리스료
1년이내	23,716
1년초과 5년이내	26,676
합 계	50,392